

3.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조사국 경기동향팀)

1. ChatGPT3.5 개발로 촉발된 AI Boom을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초를 저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내 반도체 산업도 지난해 생산·수출이 증가 전환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국내 반도체 수출과 메모리 가격이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2. 2010년대 이후 과거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상승국면을 살펴보면, 상승기간은 약 2년으로 유사하였으나, 상승폭은 각 국면별 수급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반도체 경기는 스마트폰 수요 확대, 클라우드 서버 증설, 코로나 비대면 활동 증가와 같은 신규 IT 수요 증대로 상승기가 시작되었는데, 이에 대응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및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되다가 추가 수요 약화로 인한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서 하락국면으로 전환되는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상승폭은 수요 확산이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는 경우 더 컸다.

3. 최근 수요 및 공급 여건을 감안하면, 금번 반도체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 수요 측면에서 AI 서버 부문은 빅테크간 AI 경쟁 심화로 견조한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부문(일반 서버, 모바일, PC)도 on-Device 기술 적용 등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공급의 경우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제품의 생산능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익성을 중시할 가능성이 커 공급 확대가 제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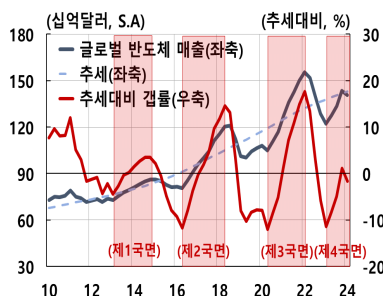
4.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흐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및 건설투자, 그리고 데이터센터 건설투자 등도 국내 경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반도체 경기의 상승기간은 유사(약 2년)하나 상승폭은 상이

서버뿐만 아니라 모바일·PC의 메모리 수요도 늘어날 전망

글로벌 반도체 매출과 국내 반도체 수출은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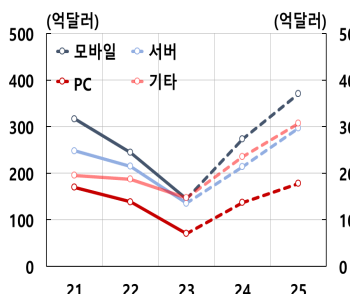
<글로벌 반도체 경기국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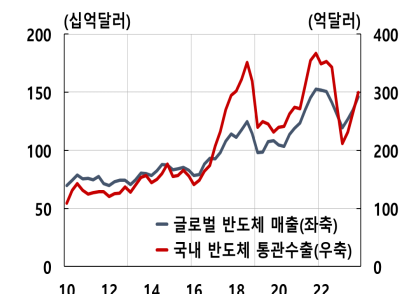
주: 1) WSTS의 글로벌 반도체 분기 매출액에서 HP필터링으로 추세를 추출

자료: WSTS, 자체 추정

<메모리 매출 전망>



<글로벌 반도체 매출과 국내 반도체 수출>



자료: WSTS, 관세청